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안 -

문 무 병 (제주교육박물관)

A. 국가명  
대한민국

B. 문화유산명  
제주칠머리당영등굿(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C. 등재 신청유산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

D. 등재 신청유산의 개요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바람의 신, 영등신을 맞이하여, 땅과 바다의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주도 2월의 세시풍속이다. 제주도에서는 음력 2월을 ‘영등 달’이라 한다. 영등달 초하루가 되면,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식솔을 거느리고 제주에 산 구경, 물 구경, 꽃구경 오며 바람을 몰고 왔다가 바람을 거두어 가면, 바야흐로 새 봄이 온다. 음력 2월 영등달 초하루에 강남천자국(中國)에서 제주에 산 구경 물 구경하러 온 영등할망은 맨 먼저 한림읍 귀덕리 ‘복덕개’라는 포구로 들어온다고 한다. 그리하여 한라산에 올라가 오백장군에게 문안을 드리고, ‘어승생 단골머리<sup>1)</sup>’로 ‘산방굴<sup>2)</sup>’을 경유하여 ‘드리디곶[橋來里]’까지 돌면서 복숭아꽃 동백꽃 구경을 하고 다니며, 육지에는 오곡의 씨를 뿌려 주고, 바닷가에는 소라, 전복, 미역 등을 많이 자라게 해초 씨를 뿌려 준다. 그리고 2월 15일 우도면 질진각(지명)으로 제주도를 떠난다. 이 기간은 서북 계절풍이 불어오는 기간이며, 제주의 날씨는 무척 변덕스럽다. 봄을 준비하는 꽃샘추위 기간이다. 영등신이 와서 머무는 15일 동안 각 마을에서는 신이 마을에 머무는 날 영등굿을 하게 되는데, 영등굿 중에 칠머리당영등굿이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대표적인 영등굿으로 음력 2월 1일 <영등환

---

1) 한라산의 지명.  
2)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 있는 굴.

영제>를 하고 2월 14일 <영등송별제>를 한다.

## 1. 등재신청유산의 기본사항

### 1.a 등재신청 유산명

제주칠머리당영등굿

### 1.b 등재신청 유산의 다른 명칭

칠머리당굿

### 1.c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과 전승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 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

### 1.d 등재신청 유산의 지역, 지리적 위치 및 범위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지역

### 1.e 등재신청유산의 범위

- 사회적 실행, 의식, 그리고 축제

## 2. 등재신청 유산의 내용 기술

### 1) 영등굿의 유래

노사신(盧思愼) 등의 『新增東國輿地勝覽』, 『邑誌』의 『耽羅志』, 이원진(李元鎭)의 『耽羅志』, 남만리(南萬里)의 『耽羅誌』, 『東國歲時記』 등에 보면,

又於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 居涯月者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以娛神 至望日乃罷 謂之燃燈 是月禁乘船<sup>3)</sup>

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八 濟州牧 風俗條

영등굿은 2월 초하루에 시작하여 2월 보름에 끝난다. 이 달에는 배타기(=어로 작업)를 금한다. 영등굿을 하는 지역은 귀덕·김녕·애월 등이다. 초하루에 영등신맞이[이迎神굿]을 하고, 보름(또는 보름 전에)에 영등신을 보내는 놀이굿[娛神(○○ 놀이)굿]을 한다. 애월<sup>4)</sup>에서는 떼배의 모양을 말머리 같이 만들어 색비단(삼색 물색)으로 꾸며서 <영등송별제>의 놀이굿으로 <약마희(躍馬戲)>를 한다.

심재(心齋) 김석익(金錫翼)의 『해상일사(海上逸史)』<sup>5)</sup> 연등절 조(燃燈節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煙燈節 諺傳大唐商人漂沒州境者 四體分解 頭骨入於魚登浦 手足入於高內涯月月等浦 故每年正月晦時 百風自西海來則謂之燃燈神降矣 沿邊居民聚群巫作野祀 夜以繼晝 造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以娛神 至二月旬望 又造舟形具帆檣 汎于浦口 謂之送神 是時風自東北來則謂之燃燈去矣 自二月初吉至于望後絕不放船 又俚語以爲燃神每於正月晦日入牛島 採食海族 翌日登陸至于十六日 復自牛島出去而所過沿邊蚌蛤螺蠣之屬 盡爲空殼乃燈神所採食者云.

영등굿의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 당나라 상인의 배가 제주에서 난파되었는데 죽은 시신은 네 토막으로 흩어져 두개골은 어등개[魚登浦]<sup>6)</sup>에 떠오르고, 손과 발은 고내, 애월, 명월 등의 포구로 떠올랐다. 그러므로 해마다 정월 그믐 때, 온갖 바람이 서해로부터 불어오면, 이는 ‘영등신’이 오시는 것이라 하여, 바닷가의 어촌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들에서 굿을 하였다. 굿은 밤에 시작하여 낮까지 이어진다. 떼 배에 말머리 같은 것을 만들어 삼색 비단으로 장식하고, 2월 10일서부터 보름까지 ‘떼말놀이’를 하여 신을 즐겁게 한다<sup>7)</sup>. 또 배 모양을 만들고 돛과 키를 갖추어 포구에 띄우는데 이를 ‘배방선(送神)’이라 한다. 배방선할 때 바람이 북동쪽에서 불면, 영등신이 떠난다고 한다. 이월 초부터 보름이 지날 때까지<sup>8)</sup>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며, 또 이 고장에서는 영등신이 해마다 정월 그믐에 우도로 들어와 다음날부터 16일까지 해조류를 따먹고 우도로부터 떠나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등신이 지나가는 곳 바닷가의 조개나 소라 등속은 모두 껍질이 빈 채로 남게 되는데 이는 영등신이 까먹어 버렸기 때문이라 한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증언과 채록에 의하면, 영등신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제주도를 방문한다고 전해온다. 첫째 이야기는 ‘외눈박이 나라 설’이다.

4) 제주시 애월읍

5) 행문회(杏文會) 편, 『심재집(心齋集)』(II), 제주문화사, 1990. p.p. 364-365.

6) ‘어등포(魚登浦)’는 행원리의 옛 이름 ‘어등개’를 말한다.

7) 오신(娛神)은 ‘신을 놀린다’는 뜻이며, 제주도의 <놀이굿>을 일컫는다.

8) 즉 짚으로 배를 만들어 신을 보내는 ‘배방선(送神)’하기 전까지는

옛날 저승 사람도 아니며, 요왕(龍宮) 사람도 아닌 영등대왕이 요왕황제국(龍宮)에 노닐고 있었다. 한수리 고깃배가 풍랑을 만나,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 나라로 불려 가고 있으니, 큰 왕석(巨石) 위에 앉아, 그 바위 속에 어선을 감추어 주고, 한수리 어부들을 살리려 하였다. 외눈박이들은 먹이를 놓치고 돌아갔다. 영등대왕은 어부들에게 고향으로 배를 저어 가면서, “관음보살”을 외치며 가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어부들은 “관음보살”을 부르며, 무사히 고향으로 오게 되었는데, 육지가 나타나자 어부들은 안심이 되어 “관음보살”을 부르지 않았다. 다시 풍랑이 일어 배는 외눈박이 나라로 불려 갔다. 다시 어부들은 영등대왕의 도움을 받고, “관음보살”을 부르는 것을 명심하여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다<sup>9)</sup>. ‘관음보살’은 제주말로 ‘개남보살’이고 지금도 어부들이 풍랑을 만나면, 눈 딱 감고 이 ‘개남보살’만 외치고 있으면, 바람이 자고 바람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구사일생의 체험담이 곳곳에서 전해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중국 ‘강남천자국’에서 찾아온다는 이야기다.

영등신은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영등대왕, 영등호장, 영등우장, 영등별감, 영등좌수 해서 모두 일곱 신위(神位)이다. 음력 2월 영등달이 들면, 이 신들은 강남천자국(中國)에서 제주도로 산 구경 물 구경하러 오는데, 맨 먼저 한림읍 귀덕리 ‘복덕개’라는 포구로 들어온다고 한다. 그리하여 한라산에 올라가 오백장군에게 현신 문안을 드리고, ‘어승생 단골머리’로 ‘소렴당’으로 ‘산방굴’을 경유하여 ‘드리디곳(橋來里)’까지 돌면서 복숭아꽃 동백꽃 구경을 하고 다니며, 세경 너른 땅(耕作地)에는 열두시만국(新萬穀) 씨를 뿌려 주고, 갯가 연변(沿邊)에는 우무, 전각, 편포, 소라, 전복, 미역 등을 많이 자라게 하는 해초 씨를 뿌려 준다. 이 신이 돌아가는 시기는 영등송별요에 보면, “각리 각리 마을 마을마다 지부찌두고(씨를 뿌려 두고) 산 구경 물 구경 해 가지고, 소섬(牛島) ‘질진각’으로 송별요해서 평안바당으로, 강남천자국으로 지 놓아 갑니다”하는 걸로 보아 영등 2월 보름날 우도 면으로 해서 제주 섬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10)</sup>.

영등신은 꽃샘추위를 몰고 온다. 영등신이 제주에 머무는 15일 동안은 예측할 수 없이 번덕스런 날씨와 혹한(酷寒)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영등신의 옷차림으로 일기를 짐치는 속신(俗信)이 있다. 이 시기에 비가 내리면, “영등신이 우장(雨裝)을 쓰고 와부난(왔으니) 비가 내리는 거 주(것이지)” 하며, 날씨가 따뜻하면, “아이고, 헛 영등이 왔구나” 한다. 헛 영등이 온다는 말은 진짜 영등은 바람의 신이기 때문에 독한 바람을 몰고 오는데, 헛 영등은 허술한 차림으로 오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하여 바람에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영등 하르방이 올 때는 할망과 함께 대감, 좌수, 별감, 호장 등 부하 식솔들을 거느리고 남쪽 나라의 산 구경, 물 구경, 꽃 구경을 하기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하고 온다. 그러나 영등 할망은 이따금 딸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 할망이 딸을 동반하고 올 때는 어머니와 딸은 사이가 좋아서 따뜻한 날씨가

9) 진성기, 『濟州島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pp. 578~579.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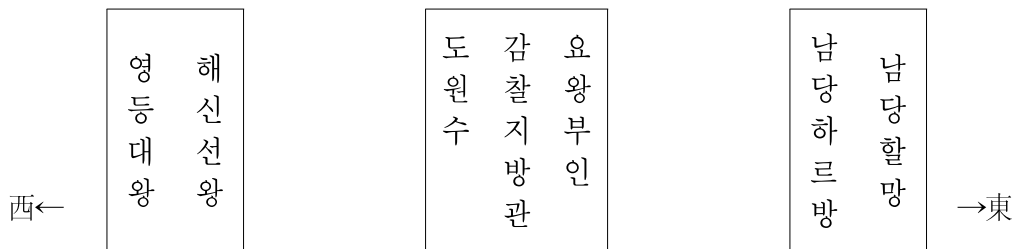
10) 故 박인주 심방談.

계속된다 하며, 며느리를 동반하고 올 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갈등이 많아서 날씨도 변덕스럽고 곳은 날씨가 계속된다고 한다. 영등달에 빨래를 하면 구더기가 낀다는 속신도 흐리고 습한 날씨 때문에 빨래가 잘 안 마른다는 것이다.

영등신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영등신은 바람의 신(風神)이다. 영등신은 농경의 신(農神)이다. 영등신은 어업의 신(海神)이다. 영등신은 외래신[來訪神]이다. 여기서 영등신은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의 전환기에 찾아오는 외래신으로, 서북 계절풍과 함께 마지막 꽃샘추위를 몰고 오는 풍신이며 농경신이다. 영등신은 농경신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와서 세경너븐드르(육지의 밭)와 요왕(바다의 밭)에 씨를 뿌리고 간다. 그러므로 영등신은 바람의 신[風神]이기 때문에 어부들의 어로 활동을 관장하는 선박수호신 '뱃선왕[船王神]'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업의 신이기도 하다. 영등신은 또 농경신이기 때문에 땅에 씨를 뿌려주고, 바다 밭을 관장하는 요왕신[龍王神]처럼 바다밭에 해초 씨를 뿌려주는 해전경작신(海田耕作神)이기도 하다.

## 2) 제주 건입동 칠머리당영등굿

건입동 칠머리당은 영등신·당신(도원수감찰지방관)·요왕(龍王)신 3신위를 모시고 <영등굿>을 한다. 칠머리당에 모시고 있는 신들의 위패(位牌)는 다음과 같다.



<제주시 칠머리당 위패>

칠머리당 <영등굿>은 당굿을 겸하고 있으며, 선박을 가진 선주들과 어부들이 많기 때문에, <영감놀이>가 '굿중놀이'로 삽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등굿의 기본형인 ① 초감제→ ② 요왕맞이→ ③ 씨드림·씨점→ ④ 배방선에서 ①과 ②사이에 <분향듬>, ③과 ④사이에 <영감놀이>가 삽입되어, 제주 지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있는 <영등굿>을 완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굿은 초감제를 하여 <영등신>과 <요왕신>을 모셔다 잠시 대기 시켜 놓고, 마을 사람들은 열명(列名)을 한다. 다시 당신을 모시기 위한 당굿으로 <분향듬> 제차로 들어가는데, 초감제로부터 <오리정 신청케>하여 <분향다리>에서 분향 당신을 놀리고, 맞아들인 뒤 삼헌관 절시키고 도산을 받고, 석살림 굿을 한다. 그리고 나서 <요왕맞이>를 하기 때문에, 결국 <오리정 신청케>를 두 번 하

는 셈이다. 요왕길을 치워 닦으면, 바다 밭에 씨를 뿌리는 모의적인 농경 의례로서 <씨드림>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어부를 위한 풍어 굿으로 <영감놀이>를 하고, 배방선을 한다. 이로 보면 칠머리당의 <영등굿>은 다른 영등굿에 없는 <본향듬>과 <영감놀이>가 삽입되어 굿의 규모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칠머리당영등굿은 풍농굿으로 일종의 바다농사(海田耕作)다. 영등굿의 소재차로 <씨드림>이 파종 의례로써 농경의 원리를 바다에 적용<sup>11)</sup>한 것이라면, <세경놀이>의 씨를 뿌리고, 말을 몰며 밭을 밟는 모의적인 농경의례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약마희>의 해답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애월 등지에서는 특히 떼배를 말 모양으로 만들어 타고 바다 밭에 씨를 뿌리며 <떼몰놀이>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 <약마희>는 배방선에서 하는 경조행사가 아니라 바다 밭에 씨를 뿌리는 <씨드림>을 밭에 씨를 뿌리고, 말을 몰며 밭을 밟는 <세경놀이>의 일부를 착용하여, 농경 방법을 바꾸어 바다 밭에 말 모양의 떼배를 타고 씨를 뿌리는 <떼몰놀이>를 창안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애월 등지에서 하였던 <떼몰놀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해녀들이 직접 바다에 나가 갯가 바위에 서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떼배를 타고 나가 깊은 '여'에 씨를 뿌렸던 <씨드림>이 변형이요, 그것을 놀이화한 것이다.

칠머리당영등굿은 어촌마을의 해신신앙이다.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은 음력 2월 초하루 <영등환영제>와 2월 14일에 <영등송별제>를 하는 당이다. 그리고 칠머리당 영등굿에서 <영감놀이>를 한다. 칠머리당 영등굿에서 하는 <영감놀이>는 단골들 중 배를 부리는 사람이 많아 선주(船主)들을 위한 '선왕고사(船王告祀)'가 나중에 <영등굿>에 끼여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풍어를 기원하는 굿의 '굿중 놀이'로 삽입된 것이다<sup>12)</sup>. 그리고 영등달에 택일하여 수협과 각 마을 어촌계가 공동으로 벌이는 <풍어제>를 할 때도 <영감놀이>를 한다. 영등 풍어제는 마을마다 정월 보름에 행하던 선왕굿(배코스)을 어촌계가 합동으로 벌이는 굿으로, 이 때 <용왕맞이>를 하고, 선신(船神)인 선왕을 위한 뱃고사로서 <영감놀이>를 한다. 그러므로 <영감놀이>는 선박을 관장하는 '선왕신'에게 기원하는 풍어굿이며, <씨드림>·<요왕맞이> 등 해전경작의례(海田耕作儀禮)를 행한 후, 굿의 막판에서 하는 것이다.

### 3) 칠머리당 영등굿의 전승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매년 벌어지는 영등굿은 굿을 주재하는 심방을 비롯한 보존회 사람들과 이들을 도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골(주민들)'과 유지, 동사무소 및 수협·해양경찰 등 관련 공무원과 직원들, 문화재 관계자와 연구자, 구경하는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축

11) 玄容駿, 「濟州島의 영등굿」, p. 134.

12)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p. 201.

제의 곶판을 벌이는 제주의 대표적인 마을곳으로 제주 영등곶의 역사와 연륜을 잘 말해 준다.

이와 같이 전통축제로서의 영등곶은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2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관광객은 물론 제주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적인 도시축제, 아이들이 현장에 찾아가 배우는 전통문화 현장학습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영등곶을 제주의 중심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칠머리당영등곶보존회는 1981년부터 기능을 가진 심방들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연구자와 마을의 원로, 연희파와 학생까지 참여하는 수련장과 연수실을 갖춘 보존회로 발전하고 있다. 보존회는 81년 초대 예능보유자 안사인 옹이 1990년 작고한 뒤, 김윤수(남,1946년생) 심방이 2대 예능보유자로 보존회를 이끌고 있으며 전수조교 고순안, 이용순을 비롯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 전수교육을 담당 전승과 현장교육을 통해 후배들을 키우고 있다.

### 3. 등재를 통한 유산의 가시성과 상호인식 제고, 그리고 대화촉진 기여도

제주 칠머리당 영등곶은 제주의 독특한 세시풍속(歲時風俗)이며 제주의 특이한 음력 2월의 계절제의(季節祭儀)로서 꽃샘추위를 보내고 새봄을 여는 바람의 축제다. 음력 2월은 서북계절풍을 몰고 오는 바람의 신 ‘영등할망(영등할머니)이 오시는 달’, ‘영등이 드는 달’이라 하여 영등달이라 한다. 이 영등달에 부는 바람을 ‘영등바람’이라 하고, 바로 이 영등바람을 맞이하여 마을의 신당에서 벌이는 곶을 영등곶이라 한다. 영등달에 부는 영등바람, 바로 그 영등바람을 몰고 제주를 찾아온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바람의 축제가 영등곶이다.

제주시 건입동은 제주시 중심 시가를 이루고 있는 시내 5개동,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용담동, 건입동 중의 하나다. 그러나 예전에는 제주읍성(濟州邑城) 동쪽 성(城) 밖에 자리 잡은 작은 어촌이었다. 현재 제주 시가의 중심은 조선시대에는 제주목(濟州牧)의 성(城) 안에 있었고, 성의 동문을 가로질러 산지천(山地川)이 흘렀으며 산지천의 하구에 있는 포구를 ‘건들개’라 불렀다. 이 포구가 한자로 표기하면 건입포(健入浦)이며, 건입포 근처에 마을을 이루고 고기잡이(漁撈作業)와 물질(海女作業)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룬 마을이 오늘날의 건입동이다.

제주에는 마을마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守護神)을 모신 본향당(本鄕堂)<sup>13)</sup>이 있는데, 건입동의 본향당(本鄕堂)을 <칠머리당>이라 한다. 건입동의 본향당을 칠머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은 본향당이 있는 곳의 지명(地名)이 ‘칠머리’이기 때문이다. 칠머리당은 지금은 사라봉 동남쪽 만덕기념관 동쪽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지만 원래는 건입동의 동쪽, 제주항(濟州港)과 사라봉(紗羅峰) 중간에 있는 바닷가 언덕에 있었다.

칠머리당에서는 해마다 영등달 초하룻날이 돌아오면, 해마다 제주를 찾아오는 내방신(來訪神)

13)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신당(神堂).

인 영등신을 맞이하여 <영등환영제>를 하며, 영등달 열나흘날(음력 2월 14일)에는 영등신을 떠나보내는 영등손맞이<sup>14)</sup> <영등송별제>를 한다.

<영등굿>을 할 때는 ‘영등할망’이라 부르는 바람의 신이 시베리아에서 근원하여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맵고 질긴 서북계절풍을 몰고 제주 섬에 와서 동백꽃 복숭아꽃을 피워 봄기운을 돋우고, 제주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고 간다. 그렇게 하면 제주 땅에 새봄이 찾아오는데 이러한 현상을 사람들은 꽃샘추위라고도 하고, “영등할망이 왔다.”, “영등할망이 바람을 몰고 찾아와 땅과 바다에 씨를 뿌리고 간다.”고 한다. 영등이 들어와 뿌리고 간 신바람을 통해 움츠렸던 겨울은 가고 새날 새봄이 열리는 것이다.

제주도는 2월 초하루에 영등할망이 들어오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 그러므로 영등신은 바람의 신으로 지독한 혹한의 꽃샘추위를 가져오는 신이라 믿는다. 제주의 영등달은 그래서 매우 춥다. 영등달엔 묘한 속신이 있다. 영등할망이 올 때 딸을 데리고 오면 딸과는 사이가 좋아 날씨가 좋다고 한다. 그러나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해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좋지 않은 관계 탓으로 궂은 날씨가 계속된다고 한다. 영등달에 부는 바람을 보고 제주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영등신은 ‘영등할망’으로 대표되지만, 영등신이 여러 식솔을 거느리고 제주에 찾아온다는 속설도 있다. 영등달이 되어 영등신이 제주에 꽃구경 올 때, 식솔을 데리고 오는데, 비옷을 입은 영등신이 오면 비가 오고, 두터운 솜 외투를 입은 영등이 오면 그해 영등달엔 눈이 많이 오며, 차림이 허술한 영등이 오면 영등달이 유독 날씨가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의 영등달은 날씨도 춥지만 습기가 많아 빨래감이 잘 마르지 않고 구더기가 낀다고도 한다. 이와 같이 제주의 영등신앙은 겨울과 봄의 전환기에 찾아오는 제주의 무서운 추위와 관련이 많다. 이것이 제주지역 특유의 영등신앙을 이루기도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산촌이나 어촌 어디서나 영등굿을 한다. 즉, 제주의 영등굿은 바람의 축제이며, 세경 넓은 들판에 열두시만곡(12穀) 곡식의 씨를 뿌리고, 바다 밑 해전(海田)에 해초를 키우는 풍농굿이다. 영등신은 제주도에 찾아온 내방신(來訪神)으로 바람의 신이면서, 해신(海神)이고, 풍농신이다. 영등굿은 제주의 땅과 바다에 바람이 불어와 씨를 키우는 2월의 풍농제인 것이다.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은 영등굿을 당굿으로 하는 당이며, 칠머리당의 당굿은 제주의 대표적인 영등굿이다. 제주의 영등굿 중 제주시 칠머리당의 당굿은 제주의 영등굿을 대표하는 마을굿으로 국내외 학자와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계절제(季節祭)로 바람 타는 섬 제주도에 남아있는 영등굿의 뿌리가 되는 곳이다. 이 당굿은 1986년 11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71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여느 마을처럼 당굿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의 계절제

14) 영등달에 찾아오는 손님(來訪神)맞이.



의 중 독특한 형식을 지닌 당굿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등굿은 제주절섬(絶海孤島) 2월에 부는 바람축제이며, 마을굿으로 치러지는 당굿이다. 바로 이 굿을 당굿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굿이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중심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벌어지는 <영등굿>은 영등달에 불어온 바람을 보고 느끼며, 상상하고 그리며 완성한 ‘바람을 시각화한 축제’, 묵은 겨울과 새봄을 사이에 두고 제주 도민의 문화 상상력이 완성한 ‘바람제[風祭]’인 것이다. 새봄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어온 바람을 맞으며 완성한 새봄맞이의 굿이다. 축제는 봄의 개화를 시샘하는 마지막 서북 계절풍이 불어와 돛박꽃[冬栢花], 도실낭꽃[桃花]이 필 무렵이며, 이때가 음력 이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보름동안이다. 그러므로 영등신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의 전환기에 찾아오는 외래신으로, 서북계절풍과 함께 찾아온 마지막 꽃샘추위, 혹독한 추위를 몰고 오는 바람의 신[風神]이며 농경신이라 할 수 있다. 영등신은 농경신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와서 들판(육지의 밭)과 요왕(바다의 밭)에 씨를 뿌리고 간다. 영등신은 바람의 신[風神]이기 때문에 어부들의 어로 활동을 관장하는 선박수호신 ‘뱃선왕[船王神]’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업의 신이기도 하다. 또 영등신은 농경신이기 때문에 땅에 씨를 뿌려주고, 바다 밭을 관장하는 요왕신[龍王神]처럼 바다밭에 해초 씨를 뿌려주는 해전경작신[海田耕作神]이기도 하다. 서북계절풍이 직접 와 닿는 곳은 한라산 산북지방이고 서북풍이 벗어나는 길은 산북지방의 동쪽 끝 우도라는 상정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신화에 의하면 제주의 바람길은, 한라산의 ‘어승생 단골머리→소림당→산방산→드리디곶[교래리]→세경너븐드르(野田)→각 마을의 해변(海田)→우도 질진각’으로 해서 제주를 떠난다. 영등신의 내방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북계절풍의 경로와 같다. 이와 같이 영등신은 영등 2월 보름 동안 계절의 전환점을 돌고 가는 바람의 신이다. 영등신은 바람을 몰고 와서 마지막 ‘꽃샘추위’를 선물하며 동시에 새봄의 개화를 촉진하는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영등달 15일까지는 제주의 새봄을 준비하는 바람의 축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몸으로 느끼며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며 제주에 온 할망을 모시고 벌이는 축제가 영등굿이라 한다면, 영등굿을 대표하는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은 바람을 맞이하는 계절제, 바람을 시각화하고 인격화 한 신화축제이며, 신과 신화로 서사화하여 완성한 <영등굿>은 바람의 신을 맞이하여 벌이는 축제를 시각화하여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봄축제로 완성된 것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의 변환기 바람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꽃샘추위를 바람의 신령 ‘영등할망’이 제주에 오셨다하고 할망을 모시고 농사의 풍요와 자손의 무병장수를 비는 <영등굿>은 고대탐라국 시대부터 이어온 계절제이며 생활축제로서 제주지역 음력 2월의 세시풍속이다. 다시 말하면 칠머리당 영등굿은 서북계절풍이 불어오는 기간의 지역적 특징이 너무나도 뚜렷한 제주민속축제다.

이리하여 바람의 축제 <영등굿>이 끝나는 음력 2월 15일을 기점으로 꽃샘추위와 영등바람은

복상하여 반도의 산야에도 봄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제주지역축제로 시작한 바람의 축제는 한 반도의 전 지역에 봄꽃을 피우며 끝이 난다.

따라서 제주 지역축제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고, 마을 공동체가 신앙과 축제를 통해 하나 되는 마을굿이며, 새봄을 준비하는 계절제의이며, 지역의 풍속과 문화적 특수성을 지닌 문화축전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유산의 중요성 인식을 높이는 데 손색이 없는 뛰어난 축제임을 확신한다. 따라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유산등재는 문화다양성과 인간의 창조성을 존중하고 공동체, 집단, 개인 사이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반드시 등재되어야 할 것이다.

## 4. 보호조치

- 4.a 등재신청 유산의 현재 또는 최근 보호노력
- 4.b 보호조치의 제안
- 4.c 관련 국가, 공동체, 집단, 개인의 의지

## 5. 공동체의 참여 및 동의

- 5.a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여
- 5.b 자유의지 및 사전동의
- 5.c 접근을 제한하는 관습의 존중

## 6. 목록포함 여부

## 7. 제출기록물

<보론>

## 1. 영등바람과 해양문화

바람은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다. 바람이 분다는 말은 어떤 영향과 흐름을 이야기한다. ‘바람났다’는 말은 무엇인가 흘러 정신이 빠져나간 허영의 신바람을 의미할 테고, ‘신난다’ 또는 ‘신바람’의 의미는 신과 대등한 경지, 신들린 신명의 경지를 뜻할 것이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돌연히 휘몰아쳐 오는 거대한 영향, 태풍도 바람이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언가 상처나 흔적이 남는다. 바람의 흔적은 문화다. 바람은 운동이며 문화의 조류다.

음력 2월에 바람의 신 ‘영등 할망’이 제주도에 찾아온다. 그러므로 음력 2월을 ‘영등 2월’ 또는 ‘영등달’이라 한다. 제주도의 영등달에 부는 ‘영등 바람’은 제주 환경, 문화와 풍속을 보여주는 계절풍이다. 영등달에 바람의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영등굿을 한다. 2월 초 하루에는 영등신을 맞이하는 영등환영제를 하며, 열흘이 지나 보름이 될 때까지 순망(旬望) 사이에 각 마을에서는 영등신을 보내는 영등송별제를 한다. 제주도의 세시풍속으로서 이 영등굿은 어떤 곳일까.

영등굿을 직접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원형’이나, ‘남아 있는 원형’이나를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할 것인가” 또는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오늘날의 <영등굿>은 분명 남아 있는 원형이다. 사라진 굿을 보충한 ‘원형’을 만들기 위해, 지금은 자취를 감춰 버린 약마희(躍馬戲)가 영등굿의 어떤 제차(祭次)에서 연행되던 놀이굿인가 하는 문제가 자주 원형 보존과 함께 논의가 되어 왔다.

<칠머리당굿>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당굿과 영등굿의 결합, ‘굿중 놀이’인 <영감놀이>의 삽입 등의 원인을 캐는 것도 <영등굿> 연구에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함께 다시 보존이나 창조적 계승이나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맹목적인 보존은 문화를 골동품으로 만들어, 전시용이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보자는 다목적 적인 정책만이 있었을 뿐, 진정 ‘아래로부터의 예술’, ‘현장으로부터의 예술’은 없었기 때문에, 상실된 가치를 새로운 사회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로 복원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sup>15)</sup>. 결국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 문화를 복원하기 위하여, <영등굿>의 창조적 계승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15) 문무병, 「민속 예술의 방향과 과제」, 『역사민속학』 제3호, 이론과 실천사, 1993. p. 183.

## 2. 오늘의 영등굿

### 가) 남아 있는 영등굿

전승되고 있는 제주도의 <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굿, 조천읍 북촌리 영등굿, 조천읍 함덕리 영등굿, 구좌읍 김녕리 줌수굿, 구좌읍 하도리 영등굿, 구좌읍 세화리 영등굿, 성산읍 오조리 영등굿, 성산읍 수산리 영등굿, 성산읍 신양리 영등굿, 성산읍 온평리 영등굿, 구좌읍 우도면 영등굿, 안덕면 사계리 줌수굿 등이다.

<표> 제주도의 영등굿

마을명	당명	신이름	제명	제일	전승자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	영등신	영등송별제	2월 14일	김윤수
북군 조천읍 북촌리	가릿당	영등신	영등제	2월 13일	
북군 조천읍 함덕리	서물당	영등신	영등제	택일	
북군 구좌읍 김녕리	잠수계 굿청	요왕신	줌수굿	3월 8일	문순실
북군 구좌읍 하도리	삼싱불돛당	삼싱불도	영등맞이	2월 12일	고순안
북군 성산읍 수산리	울리므르	하로산당	영등송별제	2월 13일	
북군 성산읍 신평리	고춧당	개로육서또	영등손맞이	2월 13일	
북군 구좌읍 송당리	송당분향당	금백주	영등손맞이	2월 13일	
북군 구좌읍 세화리	세화분향당	금상님	당굿	2월 12일	
북군 연평 동천진동	돈짓당	요왕또	영등송별제	2월 15일	
북군 성산읍 오조리	서물당(어촌계)	서물한집	영등굿	3년에 1번	
북군 성산읍 온평리	온평바닷가	영등신	영등굿	2월 12, 13일	
북군 성산읍 신양리	하로산당	요왕국부인	영등송별제	2월 15일	양정순
남군 안덕면 사계리	잠수계	요왕신	줌수굿	영등달 택일	
서귀포시 서귀리	동홍리 분향당	벼르뭇도	영등손맞이	2월 13일	
서귀포시 도순리	억머루토주분향	중의선생	영등손맞이	2월 14일	

### 나) 영등굿의 변형

구좌읍 동김녕리 잠수굿은 음력 3월 8일날 한다. 이 굿은 다른 마을의 영등굿과 같다. “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라는 것으로 보면, 김녕에서는 2월에 영등굿을 하던 것이 뒤에 마을의 사정으로 3월에 하는 <줌수굿>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해촌 마을에서 영등달에 하는 <줌수굿>이 <영등굿>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덕면 사계리에서는 2년에 한 번, 영등달 초에 날짜를 택일하여 <줌수굿>을 한다. 2틀에 걸쳐 크게 하는 곳으로 들쭉날 <요왕맞이>를 하여 길을 닦은 뒤에, 바다에 나가 씨를 뿌리고, 미

리 바다 속에 전복 소라 등을 넣어 두었다가, 해녀가 직접 들어가 전복과 소라를 따고, 망시리에 담고 나와 어촌계에 가서 인정을 받고 판다. 이를 보면, 요왕길을 닦는 것,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경작할 바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해산물을 바다 밭에서 수확하는 모의적인 농경 의례임을 알 수 있다.

#### 다) 풍농굿으로서 바다농사(海田耕作)

<씨드림>이 과중 의례로써 농경의 원리를 바다에 적용<sup>16)</sup>한 것이라면, <세경놀이>의 씨를 뿌리고, 말을 몰며 밭을 밟는 모의적인 농경 의례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약마희>의 해답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애월 등지에서는 특히 떼배를 말 모양으로 만들어 타고 바다 밭에 씨를 뿌리며 <떼몰놀이>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 <약마희>는 배방선에서 하는 경조행사가 아니라 바다 밭에 씨를 뿌리는 <씨드림>을 밭에 씨를 뿌리고, 말을 몰며 밭을 밟는 <세경놀이>의 일부를 차용하여, 농경 방법을 바꾸어 바다 밭에 말 모양의 떼배를 타고 씨를 뿌리는 <떼몰놀이>를 창안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애월 등지에서 하였던 <떼몰놀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해녀들이 직접 바다에 나가 갯가 바위에 서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떼배를 타고 나가 깊은 ‘여’에 씨를 뿌렸던 <씨드림>이 변형이요, 그것을 놀이화한 것이다.

#### 라) 해신신앙으로서의 영등굿

어촌의 해신의례(海神儀禮)로는 어부들을 수호하는 ‘선왕당’의 초하루·보름 당제와 뱃고사, 풍어제, 뿔갯 등이 있다. 특히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은 음력 2월 초하루 <영등환영제>와 2월 14일에 <영등송별제>를 하는 당이다. 그리고 칠머리당 영등굿에서 <영감놀이>를 한다. 칠머리당 영등굿에서 하는 <영감놀이>는 단골들 중 배를 부리는 사람이 많아 선주(船主)들을 위한 ‘선왕고사(船王告祀)’가 나중에 <영등굿>에 끼여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풍어를 기원하는 곳의 ‘굿중 놀이’로 삽입된 것이다<sup>17)</sup>. 그리고 영등달에 택일하여 수협과 각 마을 어촌계가 공동으로 벌이는 <풍어제>를 할 때도 <영감놀이>를 한다. 영등 풍어제는 마을마다 정월 보름에 행하던 선왕굿(배코스)을 어촌계가 합동으로 벌이는 곳으로, 이 때 <용왕맞이>를 하고, 선신(船神)인 선왕을 위한 뱃고사로서 <영감놀이>를 한다. 그러므로 <영감놀이>는 선박을 관장하는 ‘선왕신’에게 기원하는 풍어굿이며, <씨드림>·<요왕맞이> 등 해전경작의례(海田耕作儀禮)를 행한 후, 굿의 막판에서 하는 것이다.

<영감놀이>는 영감 도깨비 7형제 중 막내인 ‘술 잘먹고 소리 잘 하는 천하 오소리 잠놈’을 각 지역의 명산을 차지한 형님들이 제주에 내려와 막내 동생을 만나 술과 고기를 실컷 대접받

16) 玄容駿, 『濟州島の 영등굿』, p. 134.

17)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p. 201.

고 동생을 달래어 제장 밖으로 데려 나가는 이야기를 연극적으로 보여준다. ‘영감’은 배를 수호 관장하는 뱃선왕(船王), 도깨비, 야채, 참봉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탐관오리나 ‘천하 오소리 잡놈’과 같이 구체적으로 성격이 드러나는 호칭도 있다. 특히 이 신은 풍어의 신으로서 돼지고기를 좋아하며, 담배와 술, 수수범벅, 특히 여자를 좋아하는 호색신으로 그려지고 있다.

수심방 : 영감, 영감은 뭇을 제일 좋아하고, 잘 먹고 제일 반가와져요?

영 감 : 각서추물이요, 니발공상이요(네 발 달린 공희물), 맛이 좋은 돛대구리(돼지머리)나 우전각(右前脚) 좌전각, 우부피 좌부피(肺), 우송 좌송(胸), 염통, 태두, 쓸개, 막은창 대창(大腸), 수수범벅, 수수떡, 자청주, 자소주, 칭감주영 이태백이 먹다 남은 포도주[음식상을 가리키며 불만을 표시한다], 이거 뭐여? 이거 각서추물이요?

수심방 : 이거 보시요. 영감은 어디가 제일 좋아하여요? 저 영감을 청혀여서 그런 거나 알아보자고 우리가 청혀 건데 어디가 영감은 제일 좋아하여요?

영 감 : 우리는 팔도강산 산천마다 가쁜머들 한머들, 돌끗 여끗, 난여 든여, 정살여 도랑여, 숨은여(여는 물에 잠긴 바위섬) 이런 디서 놀지.

수심방 : 거 어장촌은 좋아하고?

영 감 : 허 잘 아는구나. 그렇지만 일만 즘수청도 좋아하고.

수심방 : 홀어멍(과부) 방도 좋아하지요?

영 감 : 그렇지 더 좋아하지.<sup>18)</sup>

위의 영감놀이 대목에서 보면, 영감이 좋아하는 식성은 돼지고기와 술, 수수범벅, 좋아하는 장소는 산과 바다와 어장촌(漁場村), 좋아하는 잠자리는 과부의 방이다. 영감은 미녀를 좋아하고 음침한 곳에 깃든다. 미녀를 좋아하는 호색성(好色性)은 도깨비가 불의 신으로서 ‘생식의 불’이 타는 것이며 이는 풍요로운 수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성적인 에너지’는 너무 넘치거나 과부족일 때, 질병 현상으로 나타난다. 과부의 병이 그렇다.

바다의 풍어를 비는 제주도 칠머리 당곳의 <영감놀이>나 영등달에 수협과 어촌계에서 벌이는 풍어제나 뱃고사 때 하는 <영감놀이>는 확실히 영감신(船王)이 풍어를 가져다 줄 것을 믿고 흥겹게 벌이는 축제(祝祭)이며 흥겨운 <놀이굿>이다.

### 3. 축제와 영등굿

#### 가) 영등굿의 보존

18) 金榮敦·玄容駿, 『濟州島 무당굿놀이』, 문화재관리국, 1965. 8. p. 153.

보존 가능한 영등굿으로는 제주시 건입동 칠머릿당 영등굿, 구좌읍 하도리 영등굿, 구좌읍 세화리 영등굿, 성산읍 신양리 영등굿, 성산읍 온평리 영등굿, 구좌읍 우도면 영등굿, 구좌읍 김녕리 줍수굿, 안덕면 사계리 줍수굿 등이 있다. 그리고 영등굿은 전통굿에 뿌리를 둔 마을굿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나아가 새로운 현대의 도시축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영등굿의 보존을 위하여 첫째, 전승 여건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승되지 않을 것을 억지로 만들어 강요할 수는 없다. <영등굿>을 보존·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전승 여건은 적어도 <영등굿>을 집행하는 기능 보유자로서 매인 심방, 단골 신앙민으로서 마을 공동체 집단, 경제적 물적 토대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 주민은 전승과 향유의 주체자로서 축제를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영등굿>을 마을의 주기적인 연례 행사이며, 세시 풍속인 축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영등굿>을 통하여, 농사와 어로의 풍등을 기원하는 신앙과 지연·혈연의 공동체 조직을 결속하고, 생활과 공동체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로 예술의 역량을 비축할 수 있는 연회패 조직으로써 걸궁패가 조직 운영되어야 한다. ‘걸궁패’의 부활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마을의 축제’로서 <영등굿>을 위한 기금의 마련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전승의 여건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계’나 ‘집’과 같은 조직으로 성장할 것이다.

둘째, 전승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승 방안은 <영등굿>을 보호·육성하면서 동시에 한 차원을 넘어 시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영등굿>을 조사·발굴하여 일정한 가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기능 보유자를 파악, 기초 조사를 기반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現地 녹음 조사를 실시하고, 錄音된 자료는 기록 보존하며, 나아가 노래의 음악적 채보작업, 춤사위의 舞譜 작업도 병행하여 보존하는 작업<sup>19)</sup>을 학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 <영등굿>을 비교 검토하여 ‘원형적인 것’과 ‘새로운 것’ 그리고 ‘전승 가능한 것’을 가려내고, 또 기예능(技藝能)이 뛰어난 것을 골라낸다. 그리고 발굴·조사한 결과, 보존·전승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전수생에게 전수 교육을 강화하여 이를 원형 그대로 길이 전승시켜야 한다. 전수 교육은 원형 전승을 위한 계획과 연구, 그리고 기능 수련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영등굿> 보존회 같은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축제로서의 영등굿

<영등굿>은 마을의 축제로 부활되어야 한다.

<영등굿>이 마을 축제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일부 신앙민 중심의 폐쇄적인 연회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영등굿>을 공동의 개방적인 축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등굿을 하는 날은 명절이

19) 현용준, 「濟州民俗藝術의 發掘 保存 傳承方案」, pp. 219-227.

며, 세시 풍속이며 민속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민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영등굿>은 관민 합동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축제 역량의 결집되어 하는 마을 굿으로서의 축제가 상당히 변질되고 있다. 관이 보존하고 학자가 연구하지만, 마을 굿의 주체인 신앙민들은 점차 소외되어 가는 ‘관주도형’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굿 자체를 보존하겠다는 정책만 있고, 굿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얻은 공동의 체험, 역사 의식과 민족혼이 상실된 ‘죽은 축제’로 간신히 <영등굿>의 형식만 전승되는 실정이다. 하루 빨리 ‘민간주도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의 행정지도에 의해 간신히 보존 전승되다가 그것도 무관심해지고 <영등굿>은 점차 쇠퇴하여 폐쇄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민족혼이 살아 있고 공동체의 삶이 건강하게 제자리를 찾는 ‘살아 있는 굿’이 되기 위해서는 보존회 육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칠머리당굿>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71호 보존회>가 있고, 이 보존회는 기능을 가진 심방들만의 집단이었다. 앞으로는 영등굿 보존을 위한 정책 당국자,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심방, 마을의 원로(元老), 민속학자들, 마을의 연희패 그리고 기능을 전수하고 싶은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련장과 연구실을 갖춘 보존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기능을 수련하고, <영등굿>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방안에 대해 연구·토론하며, 그러한 실천 욕구가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의사로 수렴되도록 협의체를 형성해야 한다. 창조적인 힘으로 재생산되는 <영등굿>으로 축제 문화를 복원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영등굿은 마을 굿이며, 풍농·풍어 굿이며, 바람의 축제이다.

살아 있는 굿, 살아서 계승되는 굿이 되기 위하여, 권위주의 시대를 겪었던 기능 보유자들의 시련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심방의 경우, 미신 타파라는 이유로 굿을 하면 경찰에 잡혀가는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하는 한편, 이승만 시대부터 경신회란 조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회유 당하고, 승공경신회 시절에는 각 집안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강요를 받기도 하면서, 굿을 하기 위하여 이 눈치 저 눈치 보아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굿 속에 살아 있는 삶의 힘, 민족혼의 맥을 상실한 국풍식 연희꾼이기를 강요하였던 것이다. 심방이 굿판을 떠나 무대에 서게 된 연유는 거기에 있다. 문민시대 심방(기능 보유자들)은 관의 눈치를 보는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생활 체험 속에서 얻은 활기를 굿 속에 불어넣고, 민족혼을 되살리는 인간 연희꾼으로 거듭나야 한다. 관이나 민속학자들도 민속 연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에 지원하고 동참하여야 한다. 축제를 통한 민족 의식의 부활은 정신적인 면에서 <영등굿>의 ‘남아 있는 원형’을 보존·전승하는 것이며,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끝으로 <영등굿>은 2월 초하루에서부터 보름까지 관광객은 물론 제주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야 하며, 학생들도 축제의 현장에 찾아가 배우는 전통문화 현장학습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영등굿>은 영등 2월 보름동안 제주시 칠머리당굿을 비롯하여 각 마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연이어 벌어지는 제주를 대표하는 현대적인 도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  
다.